마음의 상처 아물어야 5·18 치유 끝난다

이제는 씻어야 할 5·18 트라우마

-5·18 민중항쟁 32주년

〈1〉 프롤로그

어느덧 32년이 흘렀지만, 1980년 5월의 고통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눈으로 보이는 상처는 나았을 지라도 마음으로 느끼는 아픔은 여전하다. 5·18 32주년을 맞아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5·18 관련자들의 현실과 국가폭력 트라우마(trauma)센터의 필요성, 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와 진행 과정 등을 살펴본다.

◇환청, 환각으로 나타나는 트라우마=“꿈에 항상 군인들이 나타나 살 수가 없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2010년에 자살한 5·18 유공자 지모(당시 56세)씨. 30년 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 받은 지씨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다.

이처럼 심각한 트라우마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불러온다. 2009년에는 5·18 당시 기동타격대 출신인 광주시 광산구의 한모씨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데 이어 청주의 김모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수만 5·18유족회장은 “최근 사망한 5·18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평균 연령은 47세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왜,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인가=32년의 세월 동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상 ▲기념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5·18 과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것이 관련 단체 및 지역민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심각한 트라우마는 여전하다. 오랜 시간 잠재돼 있던 상처가 재발하거나 그러한 ‘생채기’가 어떤 자극에 의해 방출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나서 5·18 피해자 및 참가자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국가는 고문피해자들의 재활을 위한 의료적 치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UN 고문방지협약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이며 동시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마지막 과제’이기도 하다.

◇생채기 치유가 마지막 과제=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이에 발맞춰 트라우마센터 설립에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에 선정,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진행중이다. 현재까지는 치유대상, 규모, 운영방식 등 몇 가지 논란이 있지만 오는 6월 중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에 트라우마 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5·18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현장에서 불의에 맞서다 상처받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치유하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주 4·3 항쟁과 한국전쟁 전후의 엄청난 민간인 학살 등 과거 국가폭력의 홍수 속에서 이름없이 사라진 이들을 기억하고, 광주를 가슴에 안고 민주화와 불의 타파를 외쳤던 수 많은 이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통해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방식으로 광주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전국은 물론 세계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트라우마(Traumat)=일반적으로 폭력, 재해, 사고와 같이 일상적인 범주를 넘어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위협하는 정신 상태를 말한다. 또 트라우마에 잇따라 나타나는 증후군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라 부른다.

위치 파악만 제대로 했어도…

해남서 112 도움 요청 40대 여성 경찰 수색중 방화 사망

112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40대 여성이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건물주도 화상을 입고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4시5분께 해남군 황산면 한 조립식 창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문모(여·4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건물 앞에서는 문씨와 사실혼 관계인 건물 소유주 이모(53)씨가 화상을 입고 대전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일 사망했다.

이날 불은 건물 내부 199㎡를 태워 1800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119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문씨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새벽 3시 42분께 112에 전화해 “여보세요. 바위천국 앞이에요. 이쪽으로 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할 황산파출소에 출동 명령을 내려 경찰관 2명이 8분 뒤 현장에 도착했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주택에 들어가 112에 신고한 주민이 있는지 탐문까지 했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1㎞ 반경까지 수색하던 중 약 10분만에 인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문씨가 112에 신고하기 전인 이날 새벽 2시께 이마에 작은 상처를 입어 이씨와 함께 해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나눔·환경 사랑 ‘어린이 벼룩시장’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벼룩시장 ‘병아리떼 쫑쫑쫑’. 이날 수익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돼 광주지역 장애 어린이를 돕는데 사용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선물 싸게 판다더니… 강도 돌변 현금 강탈

광주서부경찰은 6일 어린이날 선물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30대 가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문모(37)씨와 조모(31)씨에 대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문씨 등은 지난 4일 밤 9시55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김모(33)씨를 만나자 갑자기 강도로 돌변, 목과 복부 등을 5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김경인기자 kki@

112 허위신고자에 경찰, 첫 손배 소송

경찰이 112센터 허위신고자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납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A(21)씨를 상대로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1382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소장에서 “A씨는 허위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의 시간외수당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나주시 공무원 횡령 혐의 무죄 논란

검찰 반발 항소키로

업체로부터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지출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가로채 회식비로 쓴 나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정한근 판사는 6일 행정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업체가 준 돈으로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시청 공무원 유모(55)씨 등 8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업무상 횡령은 시 자금(예산)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을 것으로 전제로 하지만 유씨 등은 대부분 7급 이하로 업무가 회계사무 보조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점유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힘든 만큼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폭력 자살 가해 중학생 보호처분

“가해·피해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도 책임”

상습적인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이 자살하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6일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갈취했다가 상습공갈 및 폭행 등으로 기소된 이모(15)군 등 중학생 3명에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군 등의 상습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굴욕감,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범행의 객관적, 외형적 침해 정도만을 놓고 보면 피해자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도 의무가 있는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 또 피해상황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군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 학교 내에서 동급생 A(당시 14세)군을 상대로 돈을 빼앗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교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A군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17층 복도 난간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다른 남자 만나” 전 여친 성폭행 미수

쌍나팔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급기야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30대가 경찰서행.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8)씨는 지난 4월21일 새벽 1시58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37)를 때린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다시 만나자는 요구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다며 거부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귀띔.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